

# Neighborhood

최고의 삶을 위한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<네이버>

SPECIAL THEME  
THERAPY



CAPTAIN GRANDE DATE  
MOONPHASE



## ZENITH

SWISS WATCH MANUFACTUR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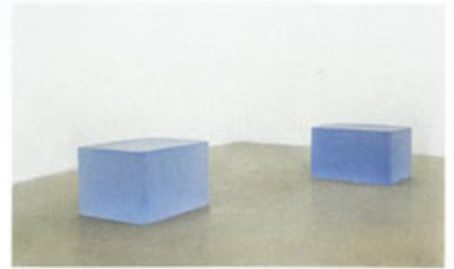
SINCE 1865

6

JUNE 2014



WWW.ZENITH-WATCHES.COM



# EXHIBIT

Editor 설미현

## 모호한 심리 풍경

로니 혼

파노라마처럼 펼쳐진 한 여성의 사진. 바로 로니 혼의 '날씨' 시리즈다. 얼핏 다 같은 사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2~3초의 간격을 두고 찍은 사진이다. 작가는 이 짧은 시간 안에 인지와 지각에 관한 모든 일이 일어난다고 믿었고 그 순간을 사진에 담았다. 6월 22일까지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<로니 혼>전에선 또 다른 신작 '날씨' 시리즈가 등장한다. 'You are the Weather, Part 2'가 그것. 아이슬란드의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는 한 여성을 촬영한 100장의 사진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짧은 시간 동안 이 여성의 표정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기록했다. 겉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의 정체성과 내면에 숨은 힘... 작가는 그 고요한 기록을 카메라에 담았다. 조각, 사진, 드로잉 등을 통해 기억, 시간, 지각과 같은 주제를 탐색하는 로니 혼. 그녀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물, 사람, 그리고 그 무엇들의 정체성과 그 안에 깃든 심리를 자신만의 풍경으로 담아낸다. 그 모호한 심리 풍경은 우리에게 묘한 긴장감을 남긴다. 문의 02-735-8449



## 50년에 담긴 디자인 철학

엔조 마리 디자인

디자인에 관한 한 치의 양보 없이 자신과의 싸움을 50년째 해온 이탈리아의 디자인 거장 엔조 마리. 인간 중심의 디자인, 원형에 가까운 형태를 찾기 위한 노력, 그리고 유토피아를 향한 은유. 그의 디자인 철학은 이 세 가지로 함축된다. 6월 21일까지 DDP에서 열리는 <엔조 마리 디자인>전은 그의 철학을 담은 전시로 동시대 이탈리아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포함, 총 400여 점이 전시된다. 82세 노장의 건재함에 경의를. 문의 02-2266-7077



## 한국 현대미술의 미래

아트스펙트럼 2014

삼성미술관 리움이 개관 10주년을 맞아 뜻깊은 기획전을 마련했다. 그 첫 전시는 바로 <아트스펙트럼 2014>. 아트스펙트럼은 국제 무대에서 성장 가능성이 주목되는 작가를 선정해 이들을 소개하는 자리로, 올해는 10주년을 맞아 아트스펙트럼 상을 신설했다. 10명 중 1명에게는 상금과 개인전 지원 혜택이 주어진다. 박보나, 정희승, 송호준 등 10명의 작가가 참여할 이번 전시는 6월 29일까지 삼성미술관 리움에서 열린다. 문의 02-2014-6655



## 그들만의 도시로 떠나다

지구적 산책

스페이스비엠에서 5월 24일부터 6월 30일까지 김수영, 염중호, 최대진 작가의 3인전 <지구적 산책>이 열린다. 이번 전시는 발터 벤야민의 <아케이드 프로젝트>의 '산책자' 개념에서 출발한 전시로 여기에서 산책자란 도시의 다양한 면면을 살피는 자를 뜻한다. 세 작가들은 '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, 도시를 어떻게 하면 잘 이해할 수 있을까'라는 질문을 던진다. 사소한 파편들 속에 녹아든 도시 풍경. 작가들의 풍경 속으로 산책을 나서보자. 문의 02-797-3093